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8호 현대불교
2008년 7월 16일(음력 6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는 것이 공양!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고 또 공양물을 공양하고 이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해 놓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양할 때도 '왜 공양이라고 했을까?' 하고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는 것이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양이라고 합니다. 참 미묘한 공양입니다. 그래서 꽃을 공양할 때도 꽃공양이라고 하죠. 이전 일체 만물만생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촛불을 켜는 거는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 여여하게 그냥 밝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밝은 마음, 부처님과 내 마음과 둘 아닌 공양을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잘못하고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 바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몇 번째 했습니다만, 내가 예전에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내 자생 부(父)가 하는 소립니다. '이거는 자식의 묘고 이거는 아버지의 묘라.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가 부한테 가면 부모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까닭이요?' 하고 물더라 이겁니다. 난 그때 시절에 너무 갑작스런 말이라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을 못잡을 때에는 거기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말려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결을 못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일을 할 때는 그냥 자로 하나가 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부모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채가 없어서 수천수만으로도 모습을 바꿔서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부모 하나가 되고 일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돼서 자와 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항상 둘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겁니다. 그러나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가 돼서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들습니까, 못 알아들습니까? (대중 박수) 그러나 아주 가깝게, 아버지는 아들과 둘이 아니다. 일을 할 때는 한 아들이 왜 버리고 일을 안 할 때는 한 부가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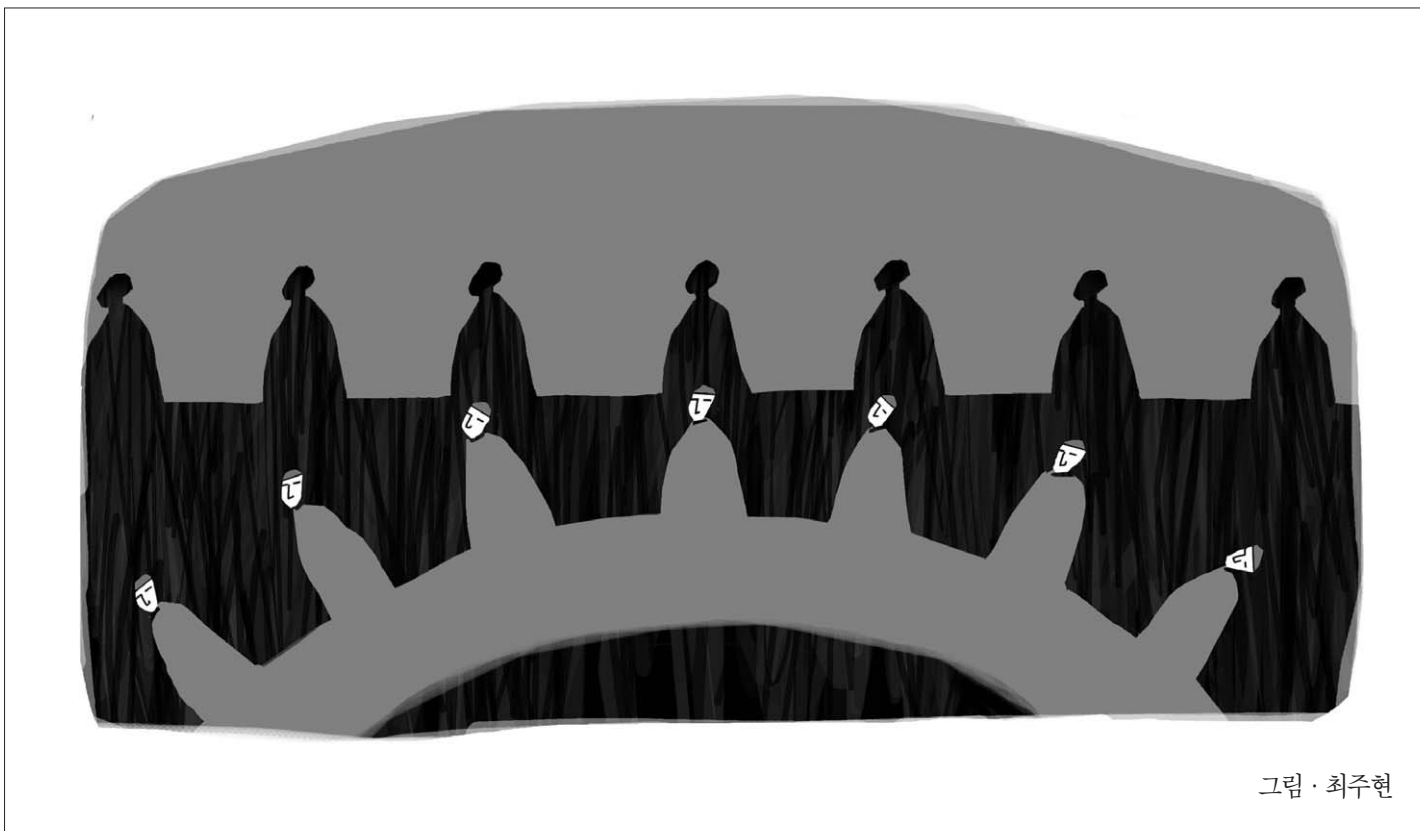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버리니 이 미묘한 법은 바로 말로는 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법당에 가서 칠정례를 하든 팔정례를 하든 백팔 배를 하든 삼천 배를 하든 하시지만 그거는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집에 불도 꺼 놓지 않고 왔는데, 불을 꺼 놓든 안 꺼 놓든 뭐, 잠이 타든 말든 백팔 배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칠정례를 하든 지 삼정례를 하든지 하고, 내가 여유가 없고 아주 급박할 때는 삼정례를 일정례로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현재심 하나로 오고, 바로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니까요. 현실도 바로 공했으며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고정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듣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먹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자생생들과 같이 둘이 아니요, 법당에 가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근본 자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 한 개 버려 놓는 것도 아름답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착한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향입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아까도 노래를 했죠? 그러니 여러분이 법당에 가서도 항상 내 마음과 부처님의 그 뜻을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동글게 놓고 진실하게 참배를 하고 지극하게 초를 켜고, 밝은 마음을 비우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을 한 그릇 떠 놓더라도, 즉 말하자면 다기를 모서 놓더라도 그 다기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빼놓고는 없습니까.

하어튼 마산의 여러분께서 생활 자체를 그대로 참선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선 입선 좌선 좌선, 이것이 한데 합쳐서 그냥 여여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없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전에도 그랬죠? 남편 노릇을 했다가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한 순간에 '어!' 그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딸도 아버지의 말이 나가고 행도 아버지의 행이 나가고 뜻도 아버지의 뜻이 나간다. 그렇게 하듯 '애,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을 하고 '어보게!' 하면 사위 노릇을 하고 '형님!' 하면 형님 노릇을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 마음에 의해 바뀌어서 화해서 나투는 그런 살림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활 자체도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을 보되, 즉 말하자면 자기가 왔다고 해서

는 안 되죠. 자기 주인놈이 다 하는 거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가고 오게 하고 이라는 거죠.

누가 몸이 비참하게 아프다 해서 관하라고 가르쳐 줬죠. 그랬는데 직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백발백중이예요. 그러나 왔다 뺏었다 왔다 뺏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히! 심부름을 시키는데 서류를 왔다 뺏었다 왔다 뺏었다 하면 그 서류 작성이 다 뭉개야, 어디? 그와 같이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되겠죠?

하어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벗어나야 할 수 있어 아요. 즉 말하자면 관습이나 업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세생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을 그냥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신통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우리가 살림하는 자체가 그대로 오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오신통이라고 한다고 해서 통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두리번두리번 찾지 마시고요. 허허하...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다를 생애, 미래에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미래라고 하지만 다음이 오늘입니다. 도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이 오늘, 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집니다. 방편으로 하나를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개로 탄생을 했더라도,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가죠. 개로 탄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 전자에 형제였고 부모자식지간이었는데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로 인연이 돼서 새끼로 태어나서 컸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만 놀이 '어! 언제 짝이 그렇게 모른다 했고 언제 짝이 그렇게 너만 살았어?' 하고 막 짓으니까 '이놈의 개가 왜 이렇게 짓어?' 그러곤 그냥 발길로 탁 차버립니다. 하하하... 그러니 아무리 '내가 아무개라, 내가 아무개라, 내가 이렇게'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개 모습을 쓴 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전자에 살던 의식만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26면으로 계속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중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라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제주 약천사 해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신심, 원력

설성 스님(덕숭림 수좌) - 해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저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여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 - 장엄한치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흰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느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한국일보 - 오직 만국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 -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래하면서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 - 해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 -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 - 그가 떠난 수행에서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집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 - 해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으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 -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해마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 - 해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기(佛氣)의 힘이 어디까지 녹아들었는지. **법보신문** -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해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히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